

「제11회 수소안전 국제컨퍼런스」 개최

- 24개국 정부 및 기관 관계자, 전문가 등 300여명 참석 -
- 전 세계 수소 안전 관련 기술 및 최신 연구동향 공유, 안전정책 홍보 -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김정관)는 오는 9월 22일(월)부터 26일(금)까지 롯데호텔(잠실점)에서 「제11회 수소안전 국제컨퍼런스(이하 컨퍼런스)*」를 개최한다.

* ICHS(International Conference on Hydrogen Safety) : 수소안전 분야 국제행사로 '05년부터 격년으로 홀수년도에 개최 중

이번 컨퍼런스는 전 세계 수소안전 관련 다양한 전문가가 모여서 최신 기술 및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, 국가 간 수소 안전정책 교류 및 홍보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대표적인 행사로 24개 국가의 발표자와 주요 국가 정부 및 기관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다.

한국은 개최국으로 수소가 미래 핵심 친환경 에너지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수소 산업과 안전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안전한 수소경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.

9월 23일(화)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컨퍼런스에서 정부 및 산업계 기조연설*, 논문 발표(163건), 현장시찰(인천 액화수소플랜트), 국내외 기업(8개) 홍보 부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각국의 수소안전 정책 및 기술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, 수소안전에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을 홍보할 예정이다.

* (정부) 한국, 일본, 캐나다, 영국 / (산업계) 현대차(한), SK이노베이션 E&S(한), NEDO(일) 등

박덕열 수소경제정책관은 기조연설에서 “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기반한 수소경제가 실현되어야 한다” 고 강조하며, “수소안전은 한 국가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국가 간에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, 이번 컨퍼런스가 안전하고 청정한 수소사회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” 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수소경제정책관 에너지안전과	책임자	과 장	황윤길 (044-203-3980)
		담당자	사무관	고건우 (044-203-3985)

□ **컨퍼런스 개요**

○ (행사명) ICHS*2025

*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ydrogen Safety

○ (목적) 세계 각국의 수소안전 전문가들의 최신 연구 동향 공유 및 네트워크 등을 통해 수소 안전 기술의 고도화 장 마련

○ (기간 / 장소) '25. 9. 22.(월) ~ 9. 26.(금) / 롯데호텔(잠실점) 3F

○ (주최 / 주관) 산업부 / 가스안전공사, IA Hysafe

○ (참가국 / 참석인원) 미국, 일본, 독일 등 24개 국가에서 약 300여명

○ (행사 구성) 기조연설 및 논문 발표 세션 운영, 현장시찰 및 기업 홍보부스 운영 등을 통해 한국의 수소산업 홍보 병행

< ICHS2025 프로그램 구성(안) >

일정		세부내용	비고
9.22(월)		· 등록 및 접수	-
9.23(화)	09:00~09:30	· 모두 발언	Hysafe 회장 KGS 사장, 이종배 의원
	09:40~10:50	· 정부 기조연설	한국, 일본, 캐나다, 영국
	11:10~17:00	· 논문 발표	-
9.24(수)	09:00~10:40	· 산업계 기조연설	현대차, SK, NEDO(일), Hysafe(벨)
	11:00~17:00	· 논문 발표	-
9.25(목)	09:00~15:00	· 논문 발표	-
	15:00~17:00	· ICHS2027 개최국 발표 등	-
9.26(금)	08:00~13:00	· 인천 액화수소플랜트 현장방문	-
	13:00~	· 폐회	-